하지 못한 인터뷰

每日新聞

정현환 기자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부고(訃告)

매년 2월이 돌아오면 해야 했으나 하지 못한 인터뷰가 생각난다.

2020년 2월1일 토요일 오후 1시쯤이었다. 점심을 먹고 졸다가 메시지 알림에 몸이 주섬주섬 반응했다.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고, 메신저를 열었다. 평소 소통하던 2018년에 자식을 군에서 잃은 유족이 기사 주소를 하나 보내왔다. 동양뉴스 '원주 빌라 일가족 사망, 상당 기간 방치···' 라는 제목의 1월29일 인터넷 기사. 그렇게 단신 뉴스를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이 기사를 왜 보내셨지?' 라는 생각과 함께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오늘도 이름모를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싶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읽는 사이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씨라네요...ㅠ"

아뿔싸. 얼떨결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인터뷰하기로 했으나 하지 못했던 군 사망사고 유족이기 때문이었다.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부터 군 사망사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했다. 육군과 해군, 공군 등 다양한 군 의문사 유족을 만났다. 2019년 10월도 유족을 만나던 여러 날 중의 하나였다. 우연히 국방부 정문을 지나치는데,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라' 는 현수막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흰색 트럭은 주차돼 있었다.

무슨 사연일까.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

2019년 국방부 문 앞에 군사망사고 순직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고 국방부 앞에 섰다. 트럭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량의 앞과 옆을 살폈다. 개조된 트럭엔 여러 개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은 없었는데,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가와 국방부 장관 책임져라' 라는 구호가 스피커에서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서성였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트럭을 살폈다. 군과 국방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연신 사진 촬영했다. 사람이 없어 메모를 남기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퉁명한 목소리로 "왜 사진을 찍어요?", "아까부터 CCTV로 당신 다 보고 있었어!", "우리도 당신을 찍을 수 있어!" 라는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졌다.

애써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또 오보를 내려고?", "국방부 애들도 싫지만, 기자는 더 싫어" 라는 문장이 얼굴에 쏟아졌다. 조금 전, 가까스로 감췄던 당황스러움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올라와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라는 고민과 주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보다 다소 누그러진 말들이 다시 이어졌다.

"진짜로 제대로 취재하고 싶어?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 이미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놨어! 그거 다 보고 다시 찾아와" 라는 말에 "그러면 말씀대로 다 보고 올 테니 2주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주세

2019년 국방부 앞. 국가유공자 고 박 일병(사망 이후 상병으로 추서)의 어머니 이 씨가 군을 상대로 사망한 군인을 제대로 예우하라고 시위했다.

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명함을 건네고 이 씨와 다음에 꼭 보자고 약속한 뒤 자리를 떴다.

유족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해 유족의 영상을 하나, 둘 찾았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와 사진을 모두 내려받았다. 유족의 사연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약속한 2주 뒤에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허탕을 쳤다. 그다음 날과 그다음 주, 한 달 뒤에 다시 국방부 정문을 찾았지만 만나기로 했던 유족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4번째 방문을 준비할 때였다. 신년 인사 겸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씨 일가족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다른 여러 경로로 다시 파악했다. 이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교차로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맞았다. 국가유공자 고 박 일병(사망 이후 상병으로 추서)의 어머니 이 씨. 그는 왜 가족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1998년 육군 6사단 사망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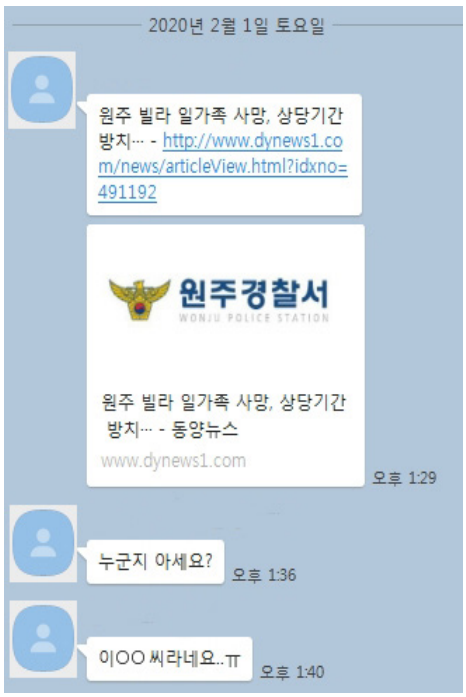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망인의 아들은 1998년 7월 군에서 사망했다. 박 일병은 육군 제6사단 청성부대에서 BOQ(독신 장교 숙소)를 관리하던 병사였다. 하지만 그는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부대 지하 보일

2019년 국방부 앞에서 1998년 육군 6사단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위했다. 이 씨는 트럭에 징집된 청년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했다.

러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감전사다"라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다.

정말 단순 감전사였을까? 아니었다. 박 일병의 사망 후, 유족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결국 군의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국방부의 첫 발표와 다른 점이 확인됐다. 1998년 7월 박 일병이 사망한 것은 맞으나, 그 죽음 이전에 선임병 김 아무개의 폭행이 먼저 존재했다. 폭행이 원인이라는 진실이 공개되자 군은 고인이 사망하고 3일 뒤, 앞서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추가로 국방부는 박 일병이 평소 부대원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으며, 이에 따라 "선임병에게 타살됐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단순 감전사로 영영 묻힐 뻔했던 진실은 그렇게 유족의 투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망인은 사망하고 약 한 달 뒤인 8월에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졌다. 동시에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예우 됐다. 당시 박 일병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김 상병은 폭행치사죄로 군사재



2020년 2월1일 토요일, 인터뷰하기로 했던 군사망사고 유족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다.

판에 정식으로 넘겨져,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투쟁

흔히들 군 사망사고 유족에게 말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면 다 잘 된 거 아니냐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니다. 어머니 이 씨를 보면 특히 그렇다. 다른 군 사망사고 유족 대비 군의 과실이 빨리 밝혀져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고인의 삶은 아들을 잃은 1998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OO 씨를 다시 뵙기로 하고 2주간 그 사연을 파헤치면서 알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군에서 아들을 잃은 엄마, 20대에 입대한 아버지를 잃은 아기, 갑자기 동생을 잃은 누나가 왜 매일 국방부 앞을 지켰는지를 말이다. 이들이 원한 건 더 이상의 배·보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군에서 박 일병과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달라는 절박함에 매일 국방부 앞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한 것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원했다. 박 일병의 유족은 처음 사건이 터지고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처음부터 거짓말한 군 지휘관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기를 바랐다. 아울러 이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세상에 없는데, 아들을 구타하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래서 엄마는 전사가 됐다. 국가와 싸우고 세상과 다투며 군 사망사고 유족은 투사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처음엔 혼자 싸웠으나 점점 다른 군 사망사고 유족과 연대했다.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유족끼리 돌아가며 국방부 앞을 지켰다.

유서

"우리는 자살한다, 부검하지 말아 달라"

뒤늦게 전해진 이 씨 유서 내용이었다. 2020년 1월 강원도민일보 '원주 빌라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기사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망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온 것으로 추정"이라고 썼다. 이 씨 장례에 참석한 다른 군 사망사고 유족은 "이미 사망한 지 약 3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가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다. 군은 징집된 청년을 잘 보호해 처음 입대할 때처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국방부는 사건이 터지고 제대로 진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했다. 군 스스로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유족이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사망한 청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했다.

하지만 창군 이래로 우리 군은 그러지 못했다. 1948년 11월30일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발생한 군대 내 모든 원인불명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위)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군대에서 약 3만 9,000여 명이 사망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복무 도중 죽음을 맞이했다. 이 중 약 50%는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됐다.

이는 말한다. 1인 가구를 4인으로 할 때, 군에서 자식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3명의 유족이 생기는 걸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18년 군진상위가 출범하고 2023년 문을 닫을 때까지 그동안 군은 징집된 청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제대로 통계를 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늘 문제였다. 그동안 군이 징집된 청년들의 정확한 사망의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사망사고 유족과 국가가 대립했다. 군 사망사고는 순직과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직결되기에 유족은 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라는 국가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족은 점점 독해진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악과 깡으로 버티기 때문이다. 박 일병의 어머니 이 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대했던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회원과 유족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군 사망사고 유족은 멈출 수 없다. 오늘은 국회로 내일은 국방부로, 때로는 내 자식이 죽은 부대로 향한다. 내 자식이 어떻게 군에서 죽었는지 진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국가가 사람을 버렸다. 징집된 청년들은 지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2월1일이 되면 이 씨와 하지 못한 인터뷰가 생각난다. 매년 더 빨리 군 사망사고 유족을 만나야 했다는 죄책감과 아쉬움을 느낀다. 지금도 우리 삶 주변에서 국가와 싸우는 군 사망사고 유족이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이 멈춰져야 한다.

매일신문 정현환 기자